뉴스와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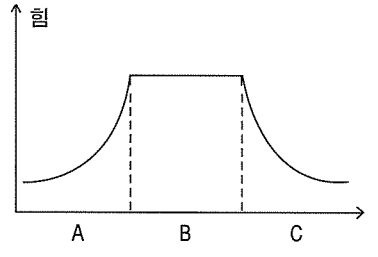
【히딩크와 지식효용 곡선】

지식보다는 '끈'이 작용하는 사회 기초와 능력 '히딩크경영' 본받아야

한국 축구가 2002 월드컵에서 새로운 면목을 세계에 과시했다. 각계에서는 한국 축구의 수준을 불과 1년반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린 거스 히딩크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 같다. 히딩크가 국제전에 나갔다 하면 주눅을 일삼던 한국 축구를 단시일 안에 탈바꿈시킨 것은 보도처럼 체력 등 기초를 다졌기 때문이다. 한국 축구는 체력훈련과 같은 기초에 소홀히 해 경기 후반이 되면 뛰지 못해 대량 실점을 하는 등 고질병을 앓아 왔었다.

또 히딩크의 '기적'은 이런 기초훈련 외에 '능력주의'의 승리라는 의견도 있다. 실력만으로 선수선발을 한 것이 한국 축구를 한 수준 높여 놓았다는 얘기다. 한국 축구계는 그 동안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정실(情實)이 개입됐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대표선수 선발에 출신대학이 관여되고 실력자들의 '입김'이 공공연하게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런 판국이니 축구 수준이 백년하청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히딩크는 선수선발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 하나로 축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히딩크의 개가는 한국 과학기술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면이 적지 않다. 한국 과학기술이 세계 수준이 되려면 월드컵에서 보았듯이 '기초체력'의 강화가 시급하다. 그 동안 한국 과학은 경제개발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상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라면서 기초과학의 산실이랄 수 있는 대학은 1백대에 끼지 못할 정도로 기초가 부실한 형편이다.



〈그림 1〉 한국사회의 지식-정보 효용 곡선모형

이처럼 기초가 부실한 데다가 '능력'보다는 각종 '끈'이 작용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BK21에도 정치권의 입김이 동원되었다는 검찰 조사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도덕적이어야 할 과학기술계도 한국의 고질병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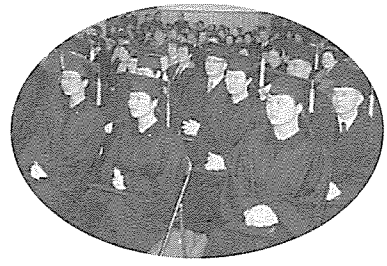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서울대 박승관교수(신문방송학)가 발표한 '한국인의 지식효용곡선'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오늘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이 쌓일수록 사회적인 파워가 커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서구사회에서 지식효용곡선을 보면 지식의 정도가 높아지면 마치 초가집 지붕 모양으로 '사회적인 파워'도 따라서 올라간다. 그런데 한국에서만은 이 곡선이 그림에서 보듯 이상야릇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한국형 곡선을 보면 초기에 교육을 통해 사회적 파워가 급격히 상승하지만(A) 일단 사회에 배출되면 지식이 늘어나도 파워는 평행선을 긋는다(B). 지식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통하는 '끈'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수준에 오르면 (C)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회적인 파워는 반대로 줄어든다. 이 연구로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교육의 신화가 사회에 나가서는 맥을 못 추고 급기야는 '아는 게 병이다'로 전락하고 만다는 얘기가 된다.

지식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21세기에 이런 '한국적 현상'이 계속되는 한 선진국이 되는 것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과학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히딩크식 경영'을 벤치마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박사 미달사태'와 해외두뇌 활용】

지식시대 역행하는 학위 기피현상 한국두뇌 3명 세계 1백인에 뽑혀



지난달은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두뇌 개발'에 대한 희비가 교차되었던 한달이었다. 어두운 소식은 서울대 후기 박사과정 모집이 지난해 전기 모집에 이어 계속 미달사태가 발생했다는 뉴스다. 밝은 소식은 미국 MIT(매서추세츠 공과대학)가 발행하는 잡지인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세계의 젊은 과학자 1백인에 한국 두뇌 3명이 뽑혔다는 뉴스다.

특히 서울대 박사과정 모집에 미달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만저만한 사건이 아니다. 지난해 미달이 나타나더니 올해에는 미달률이 무려 21%에 이르고 있다. 자연대의 경우 미달률은 전체보다 더 낮은 40%, 농생대는 45%에 이르고 있다. 예년에 경쟁률이 비교적 높았던 공과 대학도 1백18명 모집에 91명이 응시했다. 서울대 당국자들은 이 같은 박사과정 미달은 국내 학위보다는 외국 학위를 선호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불고 있는 청소년의 이과기피, 이공계 푸대접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미달사태가 서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모든 대학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이다. 기초과학 일수록 기피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두뇌'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결정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이런 인력이 양성이 안 된다면 한국의 과학기술은 물론 사회 전체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더욱 지식이 국가 경쟁력의 열쇠가 되는 지식기반시대에 한국에서는 세계 경향에 역행하는 현상이 일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두말할 것이 없이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가 낮은 까닭이다. 미래의 두뇌 자원들이 험난한 '박사 학위'보다는 돈을 버는 기업으로 뛰어 드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심지어는 애써 교육을 시킨 이공계 인재들 사이에서 사법시험 준비 열풍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 힘들여 학위를 해도 사회적인 대우가 낮은 데다가 지난번 IMF 사태때 겪었던 것처럼 구조조정 1차 대상이 되고 있으니 학위과정 기피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더구나 21세기가 되어도 사농공상의 구태의연한 의식구조가 통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의 기피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한편 한국의 젊은 과학자 3명이 세계 젊은 과학자 1백인에 선정됐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밝혀 주는 뉴스이다(본지 13면 참조).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두뇌는 줄잡아 3천~4천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노벨상에 접근할 정도로 뛰어난 연구업적을 내는 두뇌들이 상당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해외 한국두뇌에 대한 국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년 많은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마저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총과 해외 과학자협회를 통하는 게 고작이고 해외 과학자 국내 유치도 한국과학재단의 Brain Pool사업 뿐이다. 이런 사업들이 거의 수동적인 것이어서 해외 두뇌들이 국내에 돌아오고 싶어도 제대로 된 유치제도가 없어 방랑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대 미달사태에서 보듯이 국내 두뇌양성은 이미 3D에 걸려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두뇌 부족을 해결하려면 해외 두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해외 두뇌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한 다음 활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姜信龜 〈한서대 객원교수〉